

## 고린도전서(5) 약한 자를 택하사

### ■ 본문

고전 1:26-2:5

### ■ 시작 찬송가

29장(통 29장)

### ■ 헌금 찬송가

94장(통 102장)

**교회의 다양함**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다양함 자체에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대가 지휘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 버림받지 않으려면

‘약함’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강해지고 자랑할 것이 많아질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함과 잘 됨이 멸망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 (1) 다양함과 풍성함

2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배우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전 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주의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다양함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양함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지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전 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함은 곧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초점은 모든 사람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식과 학위, 경제적인 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풍성함이어야 합니다.

### (2) 택하심과 폐하심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중요하게 비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심’과 ‘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전 1:27-28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시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 칼빈의 5대 교리

- ①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 ②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③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 ④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 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단순히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도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지식과 권력,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만날 때 폭력적이고 거칠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택하심의 반대말은 ‘폐하심’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카타르게오(καταργέω)’로 ‘잘라버린다’, ‘없애버린다’, ‘기능을 잃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강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3) 주 안에서 자라하라

두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외모와 키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얻은 자랑이 되는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기도 and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만이 남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전 1:29-31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강함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의 다양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

하나님께서 돈과 지위를 미워하셨다면 하나님께 제일 미움받을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7.12.20. 수요기도회 중)

오늘의 한마디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